

광주 건축물, 도시미관·공공성 따진다

부 건축위, 심의기준 제정·시행...우수디자인엔 인센티브

광주시는 "우수 디자인 건축물 양성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 심의는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 심미성, 구조 안전 등을 살피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다중 이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을 심의한다.

다중 이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과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자치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심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의의 지역·대상·기준을 공고하도록 2020년 10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안을 마련하고 자문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역이다.

광주시는 배치, 경관, 친환경, 설비, 주차장 등 세부 분야별 심의 기준도 신설했다. 분야별 심의 기준에는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요소 도입 유도 ▲친환경 녹

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검토 강화 ▲입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단지 개방감 확보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시행자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건축물 심의기준은 민선 8기 '창의적 도시 건축 디자인 향상제도'의 첫 번째 핵심 요소라면서 "건축물 심의기준 제정으로 획일적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지원책, 주치의센터에 물어봐

광주시, 원스톱 콜센터 운영...세무·경영·노무·법률 등 현장 컨설팅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해결 창구로, 2021년 10월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치의 센터 내에 마련된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062-960-2688)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참여업체'도 상시 모집중이다.

참여업체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세무·회계·노무·법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종합컨설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역량강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마케팅전략, 프랜차이즈 사업자문 등 업체당 최대 5회 지원한다. 전문컨설팅은 세무·회계·노무·법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법률자문부터 각종 신고 서류 작성, 서류 처리 서비스 등을 분야별 최대 3회 지원한다. 현장컨설팅은 상권이 형성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세무·회계·노무·법률·경영 등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의 모든 상담(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컨설팅 신청은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방문, 전화(062-960-2688), 팩스(062-960-2689), 이메일(9602688@gepa.or.kr), 카카오톡, 온라인(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 네이버 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3 김대중평화회의'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외교,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제공>

광주 청년공동체 8곳 활동 지원

11월까지 과업 수행비 800만원·자문단 등

광주 청년공동체 8곳이 지역 문화·복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20일부터 2월14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29개 공동체가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8개 팀(61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8개 청년공동체는 ▲'무장애 여행코스

연구' '무등산 분청사기 탐구'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책 출판' '디자인 나후기업 대상업 디자인 프로젝트' 등 문화분야 4개 사업과 ▲'지역 청년 단원 모집·연극공연 멘토링'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등 공연분야 2개 사업이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들 공동체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의 과업 수행비 800만원과 활동에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지역 공익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청년들을 성장시키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대중평화회의' DJ 철학·정신 유산 세계화

목포·신안서 10월 4일~16일 개최...노벨상 수상자 등 2000여명 참석

전남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시와 신안군 일대에서 열리는 2023 김대중평화회의를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한다.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2021년 시작한 평화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평화회의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 유산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대중평화회의 조직위원회를 열어 제2회 평화회의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내외 연사 섭외, 문화행사, 홍보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

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등 외교,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평화회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계적 여론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초청해 회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해 엠지(MZ) 세대부터 노령 층까지 전 세대가 즐기고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평화회의가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신'을 지구촌 사람과 공유

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2021년 창립대 격년제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을 주제로(잠정)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시와 신안군 일원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국내외 평화 지도자, 학계,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문화행사, 청년행사, 학술행사로 구성된다. 그 중 학술행사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기후·질병위기 해결 ▲4차 산업혁명과 인류 미래 ▲산빙전과 지구평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나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 휴식권 보장

휴게공간 3개소 확충해 총 10개소...안마기 등 편의시설도

전남도는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 31명의 휴식권 보장과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에 휴게 공간 3개소 65.3㎡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노후한 시설도 정비하는 등 이들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규 휴게공간 제공으로 전남도청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공간은 모두 10개소 195㎡로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약 6.3㎡에 해당하는 휴게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라남도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공간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휴게공간에 개별 냉난방시설, 테이블, 전자레인지, 정수기,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간에 따라 바닥 난방

을 설치했다. 또 전자동 안마기 2대를 공유적 휴게 공간에 구매·비치해 고된 노동으로 지친 피로를 해소하도록 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 공무직 사무실과 기간제 휴게실을 설치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청결지킴이 도입, 개별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미화 근로자를 포함한 도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2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절판 판매중

이방인
이 기원 소하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